

초월인가 정복인가?
- 기독교경제학의 영역과 과제 -

이흥구(건국대)

기독교경제학 연구의 큰 흐름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경제학의 연구방법론과 경제원리에 입각해 기독교를 주제로 연구하는 합리적 접근과 기독교교리에 입각해 경제학을 재구성하거나 변혁하려고 연구하는 교의적 접근이 있다. 두 가지 접근방법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치나 덕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3의 대안은 실제적 기독교경제학이다. 이것은 기독교교리를 수용하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학의 기본가정이나 접근방법을 개선하여 기독교와 경제학의 잠재적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독교경제학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기독교경제학이란 명칭은 모순적인 것처럼 들린다. 겉으로 보기에 기독교와 경제학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기독교와 경제학은 서로 다른 인간관을 갖고 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며 구원과 성화가 필요한 존재론 본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성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경제학이 상정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은 합리적 선택과 사리추구(私利追求)를 통해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일 뿐이다.¹⁾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경제학은 서로 다른 신관(神觀)을 갖고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나 경제학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반면 경제학은 인간을 신이 필요 없는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종교에 대해 적대감이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mes (1985)는 경제학도 근본적으로는 무신론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종교는 이성을 지닌 합리적 경제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²⁾ 또 기독교는 물질과 부(富)에 대해서 경제학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한다. 기독교국가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는 타종교와 비교할 때 상업, 이윤, 무역, 이익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음서도 부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독교경제학(Christian economics)은 가능한가? 기독교경제학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는 기독교경제학을 경제학의 하위분야로 보는 것이다. 미국경제학회 경제학문헌분류표에 따르면 기독교경제학은 기타특정주제(Z)분야로 분류된 문화경제학·경제사회학·경제인류학(Z1)의 하위분야 종교경제학(Z12)에 속한다.³⁾ 종교경제학은 신앙과 종교행위의 결정요인과 종교행위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종교경제학은 종교가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유인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로 경제학이 새롭게 확장되는 영역이다.⁴⁾ 종교경제학의 하위분야로 기독교경제학은 종교활동을 합리성 가설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종교활동은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되기도 하고 정치와 경제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⁵⁾

1)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많은 실험을 통해 실제 경제행위가 '인지적 편익'(認知的 偏倚 cognitive bias)와 '제한된 합리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Tomes, Nigel (1985), "Religion and the Earnings Fun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245-50.
3) 미국경제학문헌분류표를 따르고 있는 한국경제학문헌연보에서 기독교경제학은 아직 문화경제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4) Iannaccone, Laurence R. (1998),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Relig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September), 1465-1496

둘째는 기독교경제학을 교의적(dogmatic)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도록 경제학이 뒷받침하도록 한다. 교의적 입장에서는 경제학이 성경과 관련이 없는 독자적 과학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성경이 기독교경제학의 도덕적·윤리적·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에서는 영성과 이성이 분리되어 존립할 수 없다. 그러나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의 타당성은 엄밀한 실증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제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실증연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고 객관적인 실증적 뒷받침은 불가능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기독교경제학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은 합리성(경제학)으로 종교행위를 ‘서술’(descriptive)하려는 시각과 기독교교리에 입각한 경제학적 ‘처방’(prescriptive)을 제시하려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시각 모두 한 가지 기준 또는 덕목으로 기독교경제학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독교경제학은 인간존재와 행동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이해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인간존재의 행동과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와 분리되어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기독교경제학은 존립할 수 없다. 신앙과 학문이 상호 공존하고 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기독교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다루는 데는 기독교교리보다 경제학이 더 적합하다는 세속적 경제학자들의 도전을 극복하는 한편 경제학은 기독교교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신학자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것이다.

1. 합리적 기독교경제학

McCleary and Barro (2006)는 기독교를 주제로 한 경제학 문헌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⁶⁾ 첫째는 종교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경제적 요인이 종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이고, 둘째는 종교행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교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이다.

(1) 종속변수

종교를 종속변수로 보는 대표적 방법은 종교에 대한 수요와 종교의 공급을 연구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수요는 신앙생활의 이익에 비례한다. 신앙생활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에 있지만 현세에서의 이익 즉 종교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과 교인이 됨으로써 얻는 사업적 성공을 포함한다. 종교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종교생활과 주관적 행복감과 고통의 관계가 거론되기도 한다. 종교에 대한 수요는 흔히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다루어진다. 종교단체 참여는 신자가 비공식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오히려 가족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간주된다.

기독교를 주제로 한 획기적 연구로 여겨지는 Azzi and Ehrenberg (1975) 논문은 종교에 대한 수요분석에 초점을 맞춘다.⁷⁾ 가계생산함수를 사용하여 개인의 교회출석, 헌신 및 사역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했다. 교회출석 평생주기(life-cycle), 남편과 아내의 종교 활동 분담, 세속적 활동과 종교 활동 간의 시간배분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

5) McCleary, Rachel M. and Robert J. Barro (2006), "Religion and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0, No. 2 (Spring), 49-72

6) McCleary, Rachel M., and Robert J. Barro (2006), "Religion and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2), 49-72.

7) Azzi, Corry and Ronald G. Ehrenberg (1975), "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Church Attend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1, 27-56.

였다. 특히 개인소득이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시간투입이 적은 종교 활동을 선호하며, 시간투입을 덜 요구하는 교파가 교파 간의 경쟁에서 교세를 더 빠르게 확장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회출석이 가계의 효용극대화과 효율적 시간배분의 결과라고 한다면 종교생활은 시간집약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투입시간이 줄어드는 세속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Franck and Iannaccone (2014)는 교회출석률과 세속화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가정생활 등이 교회출석감소를 유발한다는 세속화가설은 기각했으나 정부가 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 교회출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⁸⁾

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출석이 줄어든다는 세속화가설이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Becker and Woessmann (2013)는 1866-1911 Prussia의 지방정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증가가 교회출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⁹⁾

이밖에도 헌금, 포교활동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 Tao and Ye (2007)는 내세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종교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내세에 대한 확신과 헌금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헌금과의 관계가 양(陽)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¹⁰⁾

세속으로부터의 경쟁이 종교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금주(禁酒)와 같이 일요일이나 종교절기에 세속 활동을 제한하는 종교법이 폐지되면서 일과 여가 또는 소비기회가 증가하고 교회출석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였다. 일요일에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기회가 증가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헌금의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¹¹⁾

Nunn (2010)은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아프리카국가에서의 기독교포교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유럽제국의 식민지에 대한 선교활동으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원주민들은 식민지 지배가 끝난 후에도 기독교도로 남아 후손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종교적 개종은 역사적 사건에 의해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 유사한 맥락에서 Iyigun (2008)은 종교개혁과 오토만제국이 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한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¹³⁾

종교서비스와 종교상품의 공급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교회를 공공재를 공급하는 상호부조 클럽(club)이나 신교전파 기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Iannaccone (1992)는 자신뿐만 아니라

8) Franck, Raphaël and Laurence R. Iannaccone (2014), "Religious Decline in the 20th Century West: Testing Alternative Explanations," *Public Choice* 159, 385-414

9) Becker, Sascha O. and Ludger Woessmann (2013), "Not the Opium of the People: Income and Secularization in a Panel of Prussian Coun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3(3), 539-544

10) Tao, Hung-Lin and Pownen Yeh (2007), "Religion as an Investment: Comparing the Contributions and Volunteer Frequency among Christians, Buddhists, and Folk Religionists," *Southern Economic Journal*, 73 (3), 770-790

11) Gruber, Jonathan, and Hungerman, Daniel M. 2008. The Church Versus the Mall: What Happens When Religion Faces Increased Secular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3(2), 831-862.

12) Nunn, Nathan (2010), "Religious Conversion in Colonial Africa,"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0 (3), 147-152

13) Iyigun, Murat (2008), "Luther and Suleyma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ember), 1465-1494

다른 교인들도 신실해야지만 교회출석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클럽에 비유하였다.¹⁴⁾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반적 클럽과는 달리 ‘혼잡’(congestion)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신도가 많을수록 ‘무임승차’하는 신도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럽모형은 이단과 사이버 분파의 출현도 합리적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단과 사이버는 결속을 도모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법(禁法)을 도입한다. 신앙생활의 이익을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종교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인 것이다.

Iannaccone and Berman(2006)는 종교적 종파주의와 극단주의 행동(테러리즘)의 등장을 클럽 재화의 공급과 같은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나 경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극단주의자와 종파주의자 집단이 대신해서 사회서비스, 정치활동, 물리적 제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교리의 우위가 아니라 조직구조의 우위를 활용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⁵⁾

종교의 공급에 주목하는 다른 연구에서는 교회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교리와 교회조직 및 신앙생활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교회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비유하여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Finke and Stark (1992)는 18세기 미국에서 감리교와 침례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교파(조합교회, 장로교, 성공회)가 갖지 못했던 성직자들의 효과적인 마케팅과 탁월한 인센티브구조에서 찾고 있다.¹⁶⁾ 감리교와 침례교가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 신도의 숫자가 증가하고 교회가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종교적 갈등을 줄이고, 광신이나 사술로부터 자유롭고 순전한 합리적인 종교를 육성하는 최적의 방법은 자유방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만약 정부가 종교를 규제하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종교상품’의 다양성이 축소되어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종교적 혁신이 위축된다고 했다.

Ekelund et al. (1996)는 가톨릭교회가 이자, 결혼, 십자군전쟁, 수도원조직, 면죄부발행, 천국, 지옥, 연옥 등에 대해 특정한 교리를 발전시키게 된 이유를 독점이론, 지대추구이론, 거래비용이론을 동원하여 설명했다. 특히 중세 가톨릭교회를 독점적 M형 기업(multidivisional firm)에 비유했다.¹⁷⁾ 중세 가톨릭교회는 독점적 M형 기업처럼 중앙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전략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교회가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McCleary and Barro (2006, 51)는 하나의 교회가 군림하는 나라에서보다는 많은 교회가 경쟁하는 나라에서 신앙심(기도생활, 하나님의 존재인정, 종교에 대한 신뢰 등)이 높았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가 국교를 정하고 종교의 진입을 규제하는 경우 종교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줄어들어 종교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처럼 종교시장이 자유경쟁에 노출되면 ‘종교상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의 성향에도 잘 맞기 때문에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⁸⁾

14) Iannaccone, Laurence R. (1992), "Sacrifice and Stigma: Reducing Free-Riding in Cults, Communes, and Other Collec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100:2, 271-97.

15) Iannaccone, Laurence R. and Eli Berman (2006), "Religious Extremism: The Good, the Bad, and the Deadly," *Public Choice* 128, 109-129

16) Finke, Roger and Rodney Stark (1992), *The Churching of America, 1776-1990: Winners and Losers in Our Religious Econom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7) Ekelund, Robert B., Robert F. Hebert, Robert D. Tollison, Gary M. Anderson, and Audrey B. Davidson (1996), *Sacred Trust: The Medieval Church as an Economic Fir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8) Barro, Robert J., and Rachel M. McCleary, 2005, "Which Countries Have State Religions?",

(2) 독립변수

종교행위를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연구에서는 신앙은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변수이다. 종교는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중요한 경제적 유인인 것이다. 신앙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는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경제학의 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신앙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때는 '가짜 상관관계'(spurious regression)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의 영향이 때와 장소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⁹⁾

Guiso et al. (2003)은 신앙과 경제관(정부의 역할, 시장경제, 협조문제, 여성근로, 근검절약,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신앙심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관과 태도는 경제성장과 소득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⁰⁾ McCleary and Barro (2006)는 종교와 경제성장의 관계, 종교와 근로윤리와의 관계 등에 대한 문헌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²¹⁾

종교행위의 도구적 기능을 탐구하는 것도 종교행위를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종교는 신앙이나 세계관 또는 가치관 형성을 통해 비물질적으로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또 종교는 불운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종교단체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통해 정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Putnam (2000)은 종교단체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을 공급하고 상호부조를 확대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Dehija et al. (2007)은 더 나아가서 종교가 급격한 소비수준의 변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부나 금융기관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사회적 보험수단이라는 것이다.²²⁾ 종교단체는 '소비'보험과 '행복'보험을 제공한다. 종교단체는 소비보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와 같은 물질적 곤란을 당할 때 물질적 환경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소득이 감소할 때에도 소비보험과 행복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지역과 종교적 사람들에게서는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보험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종교의 보험(religious charitable spending)효과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제공은 종교기관의 역할 중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이다. 20세기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교회는 사회서비스제공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대공황기간 뉴딜정책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뉴딜정책이 교회의 자선지출을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뉴딜정책으로 인해 교회의 자선지출의 크기가 30% 감소했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1331-1370.

19) 종교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다. 특히 소득, 교육, 경제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에 비해 크지 않으며 이런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종단과 종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삶에 대한 만족은 믿음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건강과 일탈행위 가능성은 종교활동 참여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종교의 영향은 친절, 보수성, 신뢰성, 위험회피 등과 같은 간단한 지표를 측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종교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모형이 필요한 이유이다.

20) Guiso, Luigi, Paola Sapienza, Luigi Zingales (2003), "People's Opium? Religion and Economic Attitud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 225-282

21) McCleary, Rachel M. and Robert J. Barro (2006), "Religion and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2), 49-72

22) Dehejia, Rajeevb, Thomas DeLeire, and Erzo F.P. Luttmer (2007), "Insuring Consumption and Happiness through Religious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1, 259-279

다. 1933-39 미국정부의 사회서비스지출 증가로 인해 교회의 사회서비스기능이 구축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다.²³⁾

교회와 정부는 유사한 공동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는 정부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Hungerman (2005)은 미국장로교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교회헌금과 교회의 공동체사역에 대한 지출에 정부복지재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했다. 교회는 정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구축효과는 20-3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²⁴⁾

(3) 논의

기독교경제학이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종교를 합리성으로 설명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종교행위(religious behavior)를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교육경제학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유인에 합리적으로 반응하여 이루어지는 인적자본(human capital)투자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

Stark et al. (1985)은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종교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했다. 과거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은 종교행위를 비합리적 행동(nonrational behavior)으로 보았다. 반면 기독교를 주제로 다루는 경제학 연구는 신앙이 비합리적이라는 ‘종전의 종교이론’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경제학은 신앙생활을 합리적 행동(rational behavior)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최적화, 선호, 시장균형에 입각해서 종교행위와 종교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종교생활이 경제유인 이외에 가정교육, 사회적 관계, 문화적 가치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종교가 인간의 비합리성에서 연유한다면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인지가 발달하면서 종교는 쇠퇴하고 말았을 것이다. 종교가 처음에는 철학에 의해 나중에는 과학에 의해 대체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은 모두 종교의 종언을 예언했다.²⁵⁾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과학의

23) Gruber, J.H. and D.M. Hungerman (2007), "Faith-Based Charity and Crowd-ou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ume 91, Issues 5-6, pp. 1043-1069.

24) Hungerman, D.M. (2005), "Are Church and State Substitutes? Evidence from the 1996 Welfare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ume 89, Issues 11-12, pp. 2245-2267.

Hungerman, D.M. (2009), "Crowd-Out and Divers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ume 93, Issues 5-6, pp. 729-740.

25) Stark, Rodney, Laurence R. Iannaccone, and Roger Finke (1996), "Religion, Science, and Ration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Hundredth and Eigh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January 5-7, 1996 (May, 1996), 433-437 19세기말 20세기초 사회학은 종교를 미개인류의 20세기 사회학은 비합리성, 착취이론으로 20세기 인류학은 비과학성으로 20세기 심리학은 신경증, 정신적 미성숙, 세뇌 등으로 설명했다. 1969년 카네기재단이 수행한 "미국학자들의 종교적 성향"에 의하면 학문분야별 종교적 성향은 다음과 같다.

분야	퍼센트		
	종교적	출석교인	비종교적
수학-통계학	60	47	11
물리학	55	43	11
생명과학	55	42	11
사회과학	45	31	13
경제학	50	38	10
정치학	51	32	10
사회학	49	38	12
심리학	33	20	21
인류학	29	15	19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못했다. 특히 첫째, 과학의 발달로 종교가 쇠퇴하고, 둘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앙심이 낮아지며, 셋째,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넷째, 특히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에 더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네 가지 가설 모두 실증연구에 의해 기각되었다.

종교사회학자 Wuthnow(1985)는 사회과학이 종교에 대해 비우호적인 이유는 사회과학이 가장 비과학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과학은 사실상 검증불가능한 가설들에 “거의 종교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종교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⁶⁾ 기독교를 주제로 한 경제학 연구는 종교사회학과 대립되는 입장을 보인다. 1990년대초 이후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합리성의 원리를 신앙, 회심, 교회출석, 헌신 등과 같은 문제에 적용하여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Gary Becker의 영향을 받은 Stark, Finke, Iannaccone 등이 시장구조분석이나 비용-수익분석 방법을 통해서 “왜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신실한가?” 등과 같은 거시적 사회패턴에 대한 문제나 “어떤 교회에 출석할 것인가?”와 같은 미시적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세의 변화를 세속화가 확대된 탓이 아니라 최적화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²⁷⁾

그러나 Montgomery (1996)는 Stark et al. (1985)보다는 기독교경제학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다. 종교에 귀의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다. 또 신앙은 주관적 확률과 같이 정보와 경험이 축적되면서 갱신된다. 그렇다면 경제학은 어떻게 종교의 궁극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Montgomery (1996)는 신앙이 객관적이며 공통된 선형지식(common prior)에 기초하며 베이즈(Bayes)확률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경제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앙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며 신앙을 갖는 것은 ‘도약’(leaps of faith)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궁극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할 확률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순간 의사결정과 선택을 해야만 살아 갈 수 있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종교(교회출석)를 갖는다면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지적 부조화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의 존재한다는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동(교회출석)함으로써 확신(신의 존재)이 서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심리학과 다른 사회과학이론을 동원하여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종교에 대해 연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경제학은 종교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회피한다. 종교에 대한 수요를 가정하지만 ‘종교상품’의 특성을 정의하지 못한다. 교회가 사교클럽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지

자료: Carnegi Commision (1969)

26) Wuthnow, Robert (1985), “Science and the Sacred,” in Philip E. Hammond ed. *The Sacred in a Secular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87-203

27) Bruce, Steve (2011), “Secularization and Economic Models of Religious Behavior,”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Religion* Published in print January 2011 | ISBN: 9780195390049, Published online September 2012 | DOI: <http://dx.doi.org/10.1093/oxfordhb/9780195390049.013.0015>Series: Oxford Handbooks

28) Montgomery, James D. (1996), “Contemplations on the Economic Approach to Religious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Hundredth and Eigh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January 5-7, 1996 (May, 1996), 443-447

못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다른 정신적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지 못한다.

과학적 탐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기독교경제학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신앙과 가치관이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종교는 가치관 변화와 신앙 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합리적 기독교경제학의 문제는 “인간을 위한 종교”를 탐구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Kuyper (1931, 44)가 지적했듯이 “인간을 위한 종교”는 기근과 역병이 횡행할 때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사이에서 번창하고 풍요의 시대에는 위축되는 현상을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종교가 부요한 자, 지식수준이 높은 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간을 위한 종교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교에는 분명히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과 목적을 볼 때 종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29)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독교경제학의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과 형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며 천상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Kuyper (1931, 62)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로 현현되지 않는 곧 주님의 몸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단체(society)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교회를 클럽이나 기업에 비유하는 것은 Calvin의 교리와 맞지 않는 것이다. Kuyper (1931, 62-63)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교회는 위계나 조직이 아닌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Kuyper (1931, 65-67)

2. 교의적 기독교경제학

교의적(dogmatic) 기독교경제학은 기독교가 경제학 연구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 경제학을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월적 가치와 영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경제학을 ‘정복’하고자 한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경제학이 합리성보다는 기독교사상과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할 때 보다 더 유용한 학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주류 경제학을 보완하려는 ‘비판적’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경제학의 틀을 바꾸려는 ‘개혁적’ 흐름이다.

(1) 경제학 비판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의 비판적 흐름은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가치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주류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과 시장경쟁에 입각한 경제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경제학이 기독교 가치를 받아들일 때 경제와 사회를 개선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산업조직론이 게임이론을 도입하고, 노동경제학이 가족과 가구 단위의 행태를 고려하여 경제학이 발전을 이룬 것처럼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세계관을 도입하여 경제학의 발전을

29) Kuyper, Abraham (193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Wm. B. Eedermans Publishing Co.), 45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과학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지닌다. 과학적 측면만을 본다면 ‘기독교수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교리가 경제학을 주도하는 ‘기독교경제학’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³⁰⁾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이 과학적 측면보다는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이 규범적 내용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엄밀한 실증적 뒷받침이 없는 규범적 경제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노조운동, 사회보장 등에 대해 기독교교리에 합당한 규범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근거로 제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야하는 것이다.

규범적 측면에만 치중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이를 뒷받침할 실증분석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경제학자로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로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해답만이 진정한 기독교경제학에 부합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진보주의자, 자유기업주의자, 간섭주의자, 비간섭주의자, 경영자단체, 노조, 종교지도자들은 엄밀한 실증적 근거 없이 각자 자신들이 제안한 답만이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주류경제학은 사회적 현상을 개인적 동기와 행동의 결과로 설명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의존한다. 세속적 경제학자들도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지만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더욱 신랄하게 비판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상정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 이상적 개인과 근본적으로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경제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만족의 극대화나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존재목적,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복종에서 찾는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사회구성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경제행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Tiemstra (1994)는 주류경제학을 윤리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한다. 주류경제학의 내용은 기독교윤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주류경제학은 희소성의 원칙과 시장유인에 초점을 맞춘다. 시장실패가 우려되면 시장유인에 입각한 내부화(internalization)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반면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기초와 의무에 따라 시장실패를 내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은 개인의 사익추구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인간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2) 경제(학) 개혁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이 경제(학)개혁으로 흐를 때는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 경제학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주류경제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학’을 도입하거나 기독교교리에 따라 경제사회구조를 변혁하는 수단으로 학문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톨릭 사회사상(Catholic Social Thought)은 주류경제학을 대신하고 경제구조를 변혁하려는 정책제안의 하나이다.³²⁾

30) Rogge, Benjamin A. (1965), "Christian Economics: Myth or Reality?" *The Freeman*, December

31) Tiemstra, John P. (1994), "What Should Christian Economists Do? Doing Economics, But Differently," *Faith and Economics* 23 (Spring) 3-8.

Beed and Beed (2006)는 가톨릭사회사상 즉 사회신학에 입각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을 제안한다. 사회신학은 경제학이 기독교윤리의 가치관과 진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세속적 경제학의 방법론보다는 유대교-기독교전통에 입각해서 사회경제적 삶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세속적 경제학으로는 경제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가톨릭사회사상은 '근본주의적'이다. 기독교사상 지상주의를 고수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정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며 인간의 행동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계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가톨릭 사회사상은 재산을 공공의 이익(사람, 자연, 동물, 환경보호)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소유주이므로 개인의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가족단위로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사회조직과 정치제도를 이용하여 가톨릭 사회사상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관리와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한다. 가톨릭 사회사상은 소득분배보다는 자산분배를 통해서 물질적 균등을 이룩하고자 한다.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는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다.³²⁾

그런데 부자청년과 삭개오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균등하게 물질을 분배하라는 것인지 단순히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최후의 심판 날 의로운 자의 비유에서도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를 도와 소자를 도운 사람은 예수님을 섬긴 것과 같아 의로운 자로 간주된다고 했다. (마 25:31-46) 나눔은 꼭 필요하지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요청은 없다.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사회경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또 신학적 고찰을 하거나 (가톨릭의 경우)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깨어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항상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만 인간의 지성(이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똑같은 해석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또 문화적, 경험적 차이로 인해 사람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방법 또한 다를 수 있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의 개혁적 흐름의 또 다른 극단은 극우적 기독교세계관을 수용한다. 가톨릭

32) Beed, Clive and Cara Beed (2006), *Alternatives to Economics: Christian Socio-Economic Perspective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는 신앙과 경제, 노동과 고용문제, 분배문제, 실업문제, 사회경제사상, 기독교경제학, 현대경제학의 특징, 자연주의 사회과학방법론, 기독교의 대응, 기독교사회경제분석방법론 등을 가톨릭교회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물론 이들은 사회신학에 입각한 주장을 하면서 사회신학이 성경의 해석,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성경에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 청지기 소명, 제한된 재산권, 가족우선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자본의 분배 등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내어 고용과 소득분배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제시한다.

33) *Catholic Social Teaching* (전미가톨릭주교단)은 희년제도와 같은 구약시대 율법정신과 유대교-기독교 전통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교황의 회칙에 근거해서 가족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지한다. 특히 자본의 공유제도 및 일과 생산수단의 공유(사용자와 근로자가 공유)를 주장하고, 근로자가 혼자 힘으로도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자신의 일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요한바오로2세가 종업원지주제를 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합형태의 근로조직을 만들어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우선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형평의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물질적 변영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릭의 사회사상과 대척점에 서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인물인 Gary North는 성경에 입각한 신정 정치를 지지하고 극단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한다. Gary North는 주류경제학이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은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은 천지창조론부터 시작해야 확고한 기반을 수립하고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Gary North는 금화본위제도를 신봉한다. Gary North의 문제는 자신이 선호하는 경제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에서 경제이론을 도출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데에 있다. 가치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주류경제학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3) 논의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해 부정적이며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기초가 없다는 점에 비판한다. 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문화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McCloskey (2006)는 자본주의가 불평등 확대와 문화파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부(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덕(德)을 세우며 도덕적 향상을 가져온다고 했다. 자본주의는 정직 인내, 용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 등의 덕목을 배양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³⁴⁾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덕목을 배양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McCloskey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덕목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이러한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Bhagwati (2011)도 Silver(1997)을 인용하여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을 틀렸다고 했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도덕성을 고양(高揚)한다는 것이다.³⁵⁾ Atherton(1992)는 시장을 대체하기보다는 시장에 빈곤과 환경위기 등을 제기함으로써 시장이 이러한 도전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³⁶⁾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일부 자연과학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연과학이 다루는 영역 중에는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도 있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오류하다는 것을 틀림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중세에는 세상과 교회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교회는 신성한 곳이나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었다. 교회 바깥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여 모든 영역에서 귀신을 몰아내듯 사단을 몰아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기독교국가에서는 정치, 예술, 과학을 망라해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경제학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경제학을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놓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이러한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는 확신을 반영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Kuyper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³⁷⁾ 세상은 창조주의 피조물로 존중되어야 했다.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

34) McCloskey, Deirdre N. (2006), *The Bourgeois Virtues: Ethics for an Age of Commercialism*,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35) Bhagwati, Jagdish (2011), “Markets and Mor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2011, 101:3, 162-165

36) Atherton, John (1992), *Christianity and the Market: Christian Social Thought for Our Times* (London: SPCK)

나라 교회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이다.³⁸⁾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톨릭 사회사상이나 극우 기독교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안으로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영향과 지도감독으로부터 정치, 문화, 종교, 과학이 자유를 확보하려는 투쟁은 이미 끝나고 말았는데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Kuyper는 일반은총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저주가 반감되었으며 세상에 대한 사단의 영향력은 위축되었다고 주장한다. 교회바깥에서 작용하는 일반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학문 활동은 교회와는 독립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자연과 인생에 감추어 놓으신 보물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반은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³⁹⁾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공존하고 보완하는 것처럼 경제학과 기독교와 하나가 될 필요가 없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다.⁴⁰⁾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도덕적 승리를 얻도록 노력해야지 국가와 사회를 신앙공동체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권위에 의한 독재로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¹⁾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다. 기독교세계관은 기독교경제학과 주류경제학을 구별하는 요소이다. 기독교세계관은 방향이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감추어진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학적 해석과 엄밀한 경제적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말씀의 독립적 의미뿐만 아니라 연결된 내용도 함께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체성은 믿음(faith)이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믿음은 나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신비로운 현(弦)인 것이다. 또 믿음은 공동체(교회, 도시)의 일부가 되고 공동체의 목적을 공유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C.S. Lewis의 말대로 믿음은 영적인 용기인 것이다.⁴²⁾ 주류경제학도 정체성을 경제외적 유인으로 고려한다. Akerlof의 ‘정체성 경제학’(identity economics)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안다.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다는 것이다. 정체성과 규범은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취향을 넘어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한 선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과 규범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회적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 사람들이 행동할 때 규범과 유인뿐만 아니라 도덕, 이타심, 올바른 처신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경제활동에서 인간의 본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간의 본성을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분류한다. 첫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둘째, 인간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이다. 인간은 기억과 사고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과 목적에 따라 자신과 환경을 냉철히 분석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삶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인간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있는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을 교정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37) Kuyper (1931, 29)

38) Kuyper (1931, 30)

39) Kuyper (1931, 31)

40) Brat (1998, 186-196)

41) Brat (1998, 197)

42) McCloskey (2006, 153-154)

죄악을 직시하고 이에 맞서 싸우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나태한 태도를 바꾼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세상에 대해 환멸을 같거나 냉소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경계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한다.

또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청지기 소명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재산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소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청지기임을 깨달을 때 개인적 목적으로 더 많은 사유재산을 축적하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섬길 수 있다. 이럴 때 사유재산제도는 희소한 자원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공유재산제도는 그러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비판에서 멈출 수 없다. 주류경제학을 새롭게 하라는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달리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은 진정한 기독교사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가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다문화, 다원사회를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제체제로 전환시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류경제학의 높은 수준에 못 미치는 분석과 정책대안을 내어놓는다면 교의적 기독교경제학이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주류경제학의 기본가정을 비판하고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경제학을 부정할 수 없다. 기독교도 경제학자는 주류경제학을 수용하면서 때때로 주류경제학의 방법론과 시사점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비판하는 예언자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5-18에서는 세상적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만나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다. 경제학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루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Claar and Klay (2007)는 주류경제학 전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주류경제학이 소홀히 하는 분배 정의문제에 대해 기독교가치관에 입각해서 실천할 대안을 제시한다. 정의로운 사회로 변영하려면 민주적 정부, 시장경제, 강력한 종교와 문화 제도의 3대 축이 확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기독교가치관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신성한 동기가 정부와 시장과 제도에 반영될 때 사회의 변영과 정의가 확고해진다는 것이다. 기독교도가 증인된 삶을 살 때 변영과 정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Claar and Klay(2007)는 Beed and Beed (2006)보다는 사상적으로 덜 과격한 쪽에 속한다. Beed and Beed (2006)은 가톨릭 사회 사상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까지 보장하는 사회건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Claar and Klay (2007)는 정의롭고 변영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복까지 보장하는 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정의는 기독교세계관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Beisner는 정의는 편벽되지 않아야 하며 호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성경에 부합되는 정의는 편벽되지 않는 것이다.⁴³⁾ 반면 Mott는 필요에 의한 분배가 성경적 정의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⁴⁴⁾ 문제는 결핍(want)을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체제와 필요(need)를 채우는 데 적합한

43) Beisner, E. Calvin (1994), "Justice and Poverty: Two Views Contrasted," in Schlossberg, Herbert et al. (eds.), *Christianity and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Oxford Declaration and Beyond* (Grand Rapids: Eerdmans), 57-80

44) Mott, Stephen Charles, "The Partiality of Biblical Justice: A Reply to Calvin Beisner," in Schlossberg, Herbert et al. (eds.), *Christianity and Economic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Oxford Declaration and Beyond* (Grand Rapids: Eerdmans), 81-99

경제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Wogaman(1990)은 공동체정의론을 주장했다.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45)

가난이 살림을 방해하게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림에는 가난이 함께 할 수 없다. 누구나 결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46) 경제개발은 실업을 줄이고 빈곤을 퇴치하는 수단이다. Remenyi and Taylor는 금융지원을 통한 소득창출(credit-based income generation)로 가난을 구제할 것을 제안한다. 신용공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도 창업과 사업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Mason, Mason and Schaeffer는 구역에서도 개인의 자원하는 행동을 통해 가난을 구제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것이 안 되면 지역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강제적으로 구제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제제도는 궁극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희년법(레위기 25장)은 이스라엘이 언약공동체로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안전장치였다. 가난한 자와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법으로 가족소유토지의 불균등한 분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희년법은 씨족중심의 사회구조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희년법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가족의 생존과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공휟하심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7)

3. 실제적 기독교경제학

합리적 접근과 교의적 접근은 서로 대척점에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합리적 접근은 기독교경제학의 형식(방법론)을 제공하고 교의적 접근은 기독교경제학의 내용(교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 경제학은 가치판단을 탐구의 영역 바깥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탐구행위는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탐구행위는 행동을 포함한다 행동의 동기는 가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은 덕목(virtues)을 전제로 한다.48)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덕윤리(사랑, 정의, 절제, 믿음, 소망, 용기 등)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중함(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경제학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Vernon Smith는 실험을 통해 이것을 입증했다.49) 그렇다면 실제적 기독교경제학은 어떤 모양을 취할 수 있는가? 경제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독교와 경제학의 모순적 관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교리는 변할 수 없지만 경제학이 기독교교리와 충돌하는 접촉면을 줄이고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다.

45) Wogaman, J.P. (1990), "Towards a Christian Definition of Justice," *Transformation*, 7(2), 181-4

46) Wolterstorff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Chapter 4. The Rich and the Poor"

47)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 25:2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께 붙여사는 거류민으로 규정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소유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산다는 것 만유의 주 소유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다. "결국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점에서, 영적인 기업(基業)무르기(죄사함을 통한 언약공동체 구성원 자격 획득)와 물질적 기업(基業)무르기(물질적인 땅회복을 통한 언약공동체구성원 자격획득) 희년사회의 구현을 의미했다." 김희권 (2016), "고대근동의 사회적 형평법(衡平法)의 빛 아래서 본 구약성경의 희년사상,"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발표논문

48) McCloskey (2006, 335)

49) McCloskey (2006, 128)

실제적 기독교경제학은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기독교가 경제학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줄여나가야 하고, 둘째는 경제학의 기본가정을 점검하고, 셋째는 경제학이 신성(sacred)과 세속(profane)을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포괄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적 기독교경제학은 어떻게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학문적 자율성과 영적 자율성(물질세계에 대한 영적세계의 우위)을 유지하면서 기독교윤리의 기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1) 과제

기독교가 경제학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폐해를 강조하는 데서 비롯된다. 시장이 사회를 정신적으로 좀먹게 하고, 불공평을 심화시키며, 사회가 소비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비난이 대표적인 오해이다. 시장자본주의가 근대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라든지 반자본주의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자본주의의 폐해는 결국 인간의 연약한 성품이 초래한 문제이지 시장과 자본주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Heilbroner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는 노력이 체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확장중심의 체제이다. Weber도 자본주의 '탐욕의 철학'의 핵심은 더 많은 돈을 벌고 획득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 Marx도 돈-자본-돈의 순환논리인 셈이다.⁵⁰⁾ 이러한 논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가 전제되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동으로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끝없이 이윤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희소성,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시장경쟁을 통해서 상도의(商道義)와 윤리를 배우게 된다.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는 끝없이 자본을 축적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이 있다면 끝없는 축적의 기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McCloskey(2006, 413)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가문과 교회와 왕조가 축적의 터전이었다고 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축적이 아니었음이 자명하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핵심은 혁신이었던 것이다.

자본주의는 '도덕주의자'로부터 소비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광고의 홍수와 대량소비 속에서 절제의 미덕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규모 있게 소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절약의 모순은 피할 수 있다. 근검절약은 기독교의 미덕이다. 그러나 천국을 포기해야만 지상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성과 세속은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보완적이다. 통속소설대신 그리스어 성경을 사서 읽고 디즈니월드대신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도 고속 인쇄기와 항공기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⁵¹⁾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유재산과 경쟁은 분명 천국에서 기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익숙한 제도가 되었다. 시장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민주적이며 교환은 긍정합(positive sum)게임을 보장한다. 불완전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체제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이념이고 사고방식이다.

50) McCloskey (2006, 412)

51) McCloskey (2006, 456)

Henry (2004)는 기독교경제학이 주류경제학과 ‘건설적인 충돌’(constructive engagement)을 통해서 경제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경제분석의 기본가정으로 검토해 보아야한다고 했다. 첫째,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방법론적 무신론을 극복하고 도덕적 규범을 경제분석의 근본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는 창조원칙이 세속에서 청지기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행위와 선택에 있어서 물질적 동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성육신원칙이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형이상학적 현실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주류경제학이 이루어낸 학문적 성취를 인정하는 겸양이 필요하다. 성령이 기독교경제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은총은 반드시 기독교경제학자를 통해서만 구현될 필요가 없다. 넷째, 인간의 죄성과 인지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전적으로 합리성 가설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간이 경제세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타락과 저주는 경제적 실패의 원인이다. 인류는 덕을 악덕으로 변질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회복시킬 수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지적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기독교경제학자의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정해야 한다.⁵²⁾

기독교경제학이 신성과 세속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이유는 신성과 세속이 존재방식이라는 데에 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세속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다.⁵³⁾ 첫 번째 계명은 초월적이고 신성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두 번째 계명은 초월적 존재는 세속적 존재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세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세속과 신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세속(profane - prudence)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다. 그러나 경제학의 분석방법은 신성(sacred - solidarity)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효용, 비용, 생산과 같은 세속적 변수는 허영, 자애, 열정, 취향, 정서 등의 변수 나아가서는 덕윤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세속주의가 실제보다 더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실제로 세상사는 신중함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능력의 한계나 (편견, 오기, 증오 등과 같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 때문에 냉철한 계산과 분석에 따라 내렸음직한 결정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여 잘못된 투자결정을 하는 사례는 흔히 발견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거져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스도가 죄 값을 지불하므로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상과 벌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세속으로 신성을 권고함이었다. 보상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보상은 보상이다. 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로 말씀하신 것은 소유와 권력과 거래와 같은 세속적 욕망이 신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이었다.

52) Henley, Andrew (2004), “Doing Economics as a Christian - Constructive Engagement or Prophetic Detachment?”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conference in Cambridge

53) McCloskey, Deirdre N. (2006), *The Bourgeois Virtues: Ethics for an Age of Commerc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05-106

(2) 학문적 자율성과 영적 자율성

기독교도 경제학자만이 기독교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와 논의를 전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기독교도 경제학자도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도 경제학자만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서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연구결과가 공공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독교 가르침을 바르게 경제학에 적용하려면 ‘기독교신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지식도 잘 갖추어야 한다.

경제학자라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권력남용과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분배의 왜곡으로 인한 불균등 등을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경제학자의 역할은 다른 경제학자들의 역할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도 경제학자의 역할이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신앙은 기독교도 학자의 학문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학자들이 어떻게 학문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기독교도 학자들은 탁월해야 하고, 분별할 줄 알며, 정직하고 친절해야 한다. 특히 학자로서 거짓 증거(bearing false witness)는 하지 말아야 한다.⁵⁴⁾ 즉 기독교도 경제학자는 일반은총의 영역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은총의 영역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제학도 잘 해야 하고, 기독교가치관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기독교도 경제학자는 하나님의 경제와 세속적 경제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경제학은 기독교경제학자의 성품이나 덕목과 분리될 수 없다. 학자는 매순간 자신이 탐구하는 내용이 정당한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몰두하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의혹을 줄이기 위해 주력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스스로 추구하는 내용이 선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⁵⁵⁾ 학문의 탐구를 통해 진리에 ‘접근’하는 것일 뿐 실제 목표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것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을 지향하는 탐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모두가 인정해준다고 해도 자신의 탐구행위를 통해 선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를 탐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분리되면 어느 것도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게 마련인 윤리적 성품이 형성되지 못하여 도덕적 탐구활동을 할 수 없다면 진리와 선 어떤 것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된다는 것이다.

Marsden은 주류경제학을 거부하는 기독교경제학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주류경제학에 합류하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주문한다. 주류 경제학과 구분되는 기독교 고유의 접근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Richardson은 주류 경제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독교경제학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경제학자는 주류 경제학에 건설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⁶⁾

54) Neal, Derek (2005), Comments on Laurence R. Iannaccone, “Economics of Religion: Deb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a New Field,” The Economics of Religion: A Symposium at the 2005 ASSA meetings, the ACE-sponsored session organized by Laurence R. Iannaccone and chaired by P. J. Hill

55) McCloskey (2006, 324)

56) Henley, Andrew (2004), “Doing Economics as a Christian - Constructive Engagement or Prophetic Detachment?” Paper presented at the 2004 Association of Christian Economists conference in Cambridge

아퀴나스는 이성은 계시를 통해 나타난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주류경제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주류경제학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 갖고 있는 영적, 물질적 섭리와 계획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특별한총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경제학을 한다고 해서 경제학 탐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인간적 결함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될 뿐이다.

기독교경제학은 믿음을 가진 경제학자들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가 경제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통로로 선택되었다면 그리스는 철학과 예술, 로마는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일반은총(common grace)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⁵⁷⁾ Kuyper는 4가지 영역으로 일반은총을 구분했다. 4번째 영역은 특별한총을 받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한 원칙에 따라 일반은총을 구현하는 삶을 영위하는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영역이다. 기독교경제학은 이와 같은 영역에 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⁵⁸⁾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신실한 교인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시장경제에서도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방법은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⁵⁹⁾

(3) 기독교윤리와 덕윤리(virtue ethics)

자본주의는 소유권을 확대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동시에 부패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다. Besiner는 기독교윤리가 기독교경제학의 윤리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경제학의 내용을 구성할 때 성경을 최고의 윤리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계시하는 바를 인용하고 참조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윤리에 위배되는 어떤 원칙이나 정책도 거부해야한다는 것이다.⁶⁰⁾ 성경은 윤리의 최고의 기준, 최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구약의 도덕률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규례로서 지켜져야 한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救贖)되었다'(갈 3:13)고 해서 무법을 행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 무법을 행

57) Kuyper (1931, 162)

58) Bratt, James D. (1998),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Grand Rapids: Wm. B. Eedermans Publishing Co.) 199-200 첫째 영역은 일반은총은 풍부하게 경험하지만 특별한총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는 못하는 곳으로 과거 중국과 같은 이교도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영역은 전적으로 특별한총만이 경험되는 곳으로 남의 권리는 강탈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제도적 교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영역은 유럽과 미국의 교회에서처럼 특별한총이 일반은총의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이나 법 등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러한 관습이나 도덕 및 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사회나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영역은 교회가 유기체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특별한총을 받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한 원칙에 따라 일반은총을 구현하는 삶을 영위하는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영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59) Claar, Victor V. and Robin J. Klay (2007), *Economics in Christian Perspective: Theory, Policy and Life Choices*, (Downers Grove: InterVaristy Press) 믿음과 경제행위, 시장교환, 재정정책, 정부의 역할, 청지기 사명, 거시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국제경제관계, 일과 소명, 고용과 노동시장, 빈곤과 불균 등의 이슈를 통해 경제개념과 청지기 사명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60) Beisner, Calvin (1989), "Christian Economics: A System Whose Time Has Come?" Address Delivered at a Conference on Christian Perspectives on the Free-Enterprise System sponsored by The Center for Business and Government, Liberty University, Lynchburg, Virginia April 7, 1989.

하는 것은 부정한 것과 같고 의와 거룩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이다. 윤리는 습관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윤리는 항상 옆에서 '불편부당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입장에서 양심(도덕관념)에 호소하는 감정과 같은 것이다.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성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구원(soteriology)과 성화(hagiology)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이다. 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1장4절에서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기술한 내용이다. 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윤리는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은 윤리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이 윤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면 기독교경제학 가능할까? 경제문제는 정치문제와 엮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문제는 윤리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윤리문제는 종교문제로 연결된다. 결국 가치체계의 위계를 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 Beisner (1989)가 기독교경제학은 기독교윤리라고 주장한 이유이다.

기독교 고유의 경제윤리를 정립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첫째, 경제학과 신학 모두 일치된 견해가 가능한 학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 경제윤리를 강요하다 보면 공공정책의 민주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 경제윤리가 율법적 기능을 하게 되어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톨릭사회사상과 같이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기독교윤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가? Beisner (1989)는 정의, 사랑, 자유, 소유, 유인이 기독교윤리의 기반이라고 했다. 첫째, 성경은 정의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편벽되지 않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경은 송사에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출 23:3, 6)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정의가 아닌가? 둘째, 사랑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넘어서서 행하는 것이다. 정의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남을 세워주는 것이다. 정의는 처벌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고후 9:7) 셋째, 성경은 자유를 ‘의에게 종이 되는 것’(롬 6:18)이라고 했다. 자유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잘못된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다. 성경은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지배를 보장한다. (행 5:4) 다섯째, 성경은 율법을 위반하면 징계하고 칭찬받을 행위는 보상한다. 기독교경제학은 인센티브의 영역을 확장하여 외부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내부적 인센티브를 고려한다. 외부적 유인은 사람들이 생산과 교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보상이나 징벌을 포함, 내부적 유인은 감사, 사랑, 증오, 시기, 기쁨 등을 포함한다.⁶¹⁾

McCloskey(2006)는 덕윤리(德倫理 virtue ethics)의 기초로 기독교의 믿음, 소망, 사랑과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덕목 신중, 절제, 정의, 용기를 꼽았다. 용기는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하고 절제는 현재의 기쁨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 McCloskey(2006, 196)는 Robert Nelson을 인용해서 개신교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톨릭은 신중, 절제, 정의, 용기를 강조한다고 했다.

McCloskey는 경제학을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한 학문이라고 했다. 신중함(prudence) 즉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합리성 위주의 경제학에서는 분배정의, 자선, 절제의 행

61) Beisner, E. Calvin (1989) “Biblical Incentives and the Assessment of the Individual’s Economic Choices,” in Chewning, Richard C. ed. (1989) *Biblical Propositions and Economics: the Foundations*, (Colorado Springs: NAVPress)

위도 '효용극대화' 문제의 균형해로 다루어질 뿐이다. 소비자를 비윤리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가치의 극대화' 즉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종업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도구적, 유물론적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랑이 없는 시장경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초월적 가치가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윤리적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사랑과 헌신은 신중함 즉 합리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⁶²⁾

C.S. Lewis는 믿음을 영적인 용기라고 했다. 감정이 우유부단하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는 믿음에 기초한다. 시장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가난한 나라와 부요한 나라의 차이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대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다. Seabright (2004)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낯선 타인을 "명예친구"(honorary friends)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업이 가능하다고 했다.⁶³⁾

소망은 미래에 어렵지만 획득 가능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고전파경제학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 McCloskey(2006, 161)는 믿음이 인간의 뿌리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뿌리에서 자라나온 꽃이라고 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지만 소망이 없으면 뿌리는 흙속에 묻힌 채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롬 5:3)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4)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 환난에 맞서게 하는 능력인 것이다.

겸손은 절제와 통한다. 진정한 겸손은 고귀한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겸손은 민주적이다. 겸손은 동료학자의 메시지에 숨어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이다. 겸손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겨한다.⁶⁴⁾ 겸손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겸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다.⁶⁵⁾

정의는 절제에 비유된다. 절제는 내면적 속성이지만 정의는 외연적 특성이다. 절제는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정의는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절제는 열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며 정의는 시민들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Aquinas는 사람은 절제를 통해 스스로를 잘 정돈할 수 있지만 정의를 통해서 이웃에게 잘 정돈된다고 했다. Aristotle 은 친구 사이에서는 정의가 필요 없다 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Rawls 는 정의는 제도와 관습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적 덕목이라고 했다.⁶⁶⁾ 정의는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 Rousseau 와 Adam Smith 이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동등하다는 것과 이생에서의 삶의 조건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⁶⁷⁾

용기의 미덕은 다른 덕목과 연합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다. 용기는 절제(자제력)하지 못하면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제 역시 다른 덕목과 함께 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절제가 지나치면 소심해지거나 세상의 좋은 것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⁶⁸⁾

62) McCloskey(2006, 120-125)

63) Seabright, Paul (2004), *The Company of Strangers: A Natural History of Economic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64) McCloskey(2006, 188)

65) McCloskey(2006, 258)

66) McCloskey(2006, 286)

67) McCloskey(2006, 287)

68) McCloskey(2006, 249)

신중함은 좋은 판단력과 실용적 지혜가 될 때 가치가 있다. 신중함이 결여된다면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일조차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Aquinas는 신중은 이성에 속하는 것이나, 용기, 절제, 정의는 이성을 열정에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Aristotle은 신중한 사람은 올바른 대상에게 적합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당한 행동을 한다고 했다.⁶⁹⁾ 신중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신중함만으로는 윤리적 삶을 살 수 없다. 칸트주의, 공리주의, 계약론은 윤리적 삶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다.⁷⁰⁾ 엄밀한 이성으로 통제하는 삶, 공리만을 추구하는 삶, 계약으로 정의를 보장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⁷¹⁾ 다양한 덕목을 신중함(합리성)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⁷²⁾ Kant 와 Rawls 의 일원주의는 현실과 동떨어져 어떠한 실증적 증거도 없이 윤리를 윤리의 영역 내에서만 고려한다.⁷³⁾ 심리적 요인, 역사적 경험과 환경적 요인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신중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다.⁷⁴⁾ Kant의 윤리론에서는 신중한 자아와 윤리적 자아가 공존하는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⁷⁵⁾ 지난 200여년간 철학자들의 사고 속에서 덕윤리(virtue ethics)를 대신해왔던 Kant의 정언명제는 지나치게 정의에 집착하고 있다.

Plato 와 Socrates 의 문제는 선에 대한 지적인 정보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데에 있다.⁷⁶⁾ 윤리와 도덕은 도덕적 명제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관습 속에 실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⁷⁷⁾

덕목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덕을 이룰 수 있다. 불균형 상태에서는 악이 되는 것이다. 죄는 덕목이 서로 융합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다.⁷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다양한 덕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덕목을 신중함 한 가지 덕목 아래에 포함시키는 일원주의, 합리성 우선주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이다.

다른 덕목과 균형을 이루지 않은 채 정의 하나만을 고집한다면 분노의 죄를 범하게 될 뿐이다. 정의에 더해서 사랑과 용기와 절제와 나머지 덕목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다.⁷⁹⁾ 기독교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경제적 삶도 지배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과업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선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이 안락한 삶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⁸⁰⁾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라는 가르침은 누구나 다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독교 가르침은 자선을 강요하지 않는다. 강제로 자선을 베풀게 하는 것은 의의가 없는 사람을 '환경의 희생자'로 보는 것이다. 사람을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69) McCloskey(2006, 255-6)

70) McCloskey(2006, 277)

71) McCloskey(2006, 335)

72) McCloskey(2006, 340)

73) McCloskey(2006, 263)

74) McCloskey(2006, 307)

75) McCloskey(2006, 320)

76) McCloskey(2006, 275)

77) McCloskey(2006, 279)

78) McCloskey(2006, 282)

79) McCloskey(2006, 285)

80) McCloskey(2006, 288)

존재로 보는 것이다. 불행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질문에 “내 탓이오(Mea Culpa)”가 아니라 “사회”라고 대답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정부나 사회에 의존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⁸¹⁾

표 1: 기독교경제학의 영역

	합리적	교의적	실제적
세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 • 일원주의(monism) • 윤리적 딜레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만 • 일원주의 • 윤리적 딜레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충적 • 윤리적 딜레마
인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을 모르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사익을 추구하는 독립적 존재 • 물질적 소비와 여가에서 성취감을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타인의 제한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익과 박애를 추구하는 상호의존적 존재 • 하나님과 타인 및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취감을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능력의 한계 • 심리적, 환경적 요인 중요 • 성품과 덕목
윤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prudence) 합리성으로 모든 덕목을 대체 • 용기(courage) - 기업 정의(justice) - 보조덕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 절제, 용기, 정의 (가톨릭) • 믿음, 소망, 사랑 (개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 절제, 용기, 정의 - 당자와 타자(self and other people) • 믿음, 소망, 사랑 - 초월적(transcendent) • 세속(profane)과 신성 덕목(sacred)의 조화 • 신중은 세속에 대응 • 신중을 제외한 모든 덕목은 신성에 대응 • 자율과 관계 (autonomy and connection)
사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으로 상호 간에 사회계약을 맺기로 동의한 개인들의 집합 • 소비와 여가 극대화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 • 사회최고의 목표는 성장률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사회에 박혀있는 존재 • 인간과 사회를 분리할 수 없음 • 인간사회는 장소와 시간의 특정성을 가짐. 역사와 전통 중요 • 사회제도는 관계개선을 돕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 gesellschaft and gemeinschaft • 자유와 연대(freedom and solidarity)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 경쟁 • 이동성 중요 •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 부와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위한 자유 • 경쟁과 협조 • 뿌리 중요 • 행복은 맥락과 관계 속에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 신뢰 • 공감 • 책임 • 나눔

81) Bennett, John (1960), *Christianity and Communism Today*, (New York: Association Press), 118.

4. 결론

스콜라철학은 신앙뿐만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창조주의 섭리를 이해해야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주는 개인과 공동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섭리한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내어 경제활동의 목적 즉 인간의 행복을 도모하는 기독교경제관이 가능하다. 물론 궁극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몽시대 이후 이러한 신앙과 이성의 보완적 관계는 깨어졌다.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고 선언한 이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성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되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 속에서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현대인의 세계 속에서는 이성만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신고전파경제학은 경제활동의 합리성에만 주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거 ‘도덕과학’으로서 경제학은 경제 문제를 윤리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사람들의 행동은 가치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도 가치판단에 근거해야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앙과 이성은 분리되어 있다. 신앙과 이성으로 수궁할 수 있는 가치관이 지적노력을 인도하는 시대, 신앙과 이성이 미분화되었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기독교경제학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⁸²⁾ 주류경제학과 기독교경제학의 차이는 인간에 대한 해석에 있다. 주류경제학에서 인간은 점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는 당연히 모래알 같은 개인들의 집합이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개인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다고 하지만 경제생활에서 개인을 경시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어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며 어디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독교경제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아래에서 형성된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놓여있는 존재로 본다. 성경은 개인을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놓여있는 존재로 본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개성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고, 사회는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집단주의는 불가능하다. 관계 속에서 자유는 자본주의의 자유와 다르다. 타인으로부터(from)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for) 자유이다. 하나님을 위한 자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 나머지 피조물들을 위한 자유이다. 본회퍼(Bonhoeffer)는 “자유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내가 타인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는 타인을 위한 자유를 의미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자유롭다.”고 했다.⁸³⁾

성경은 시종일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인간과 기타 피조물의 조화로운 관계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를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지만 인간은 궁극적 목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제제도는 관계 지향적 삶을 지지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부요함

82) McLellan, Nathan “What is a Christian Vision For Economic Life?” ARTICLE SERIES: Christianity & Economics, Regent College Marketplace Institute

83) Bonhoeffer, Dietrich (1997), *Creation and Fall: A Theological Exposition of Genesis 1-3* (Minneapolis: Fortress Press), 63

보다는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주의가 자유를 신성시하고 사회주의가 평등을 신성시하는 반면 기독교는 관계를 근본으로 삼는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장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인간은 우주 속에 위치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특정한 민족,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오셨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장소의 중요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분석의 단위인 기업과 국가도 실제로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형성되고 입지와 역사, 전통과 관습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문화명령(cultural mandate)도 관계와 공간 속에서 이해할 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는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청지기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땅을 경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인간은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희소성의 제약’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희소성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희소성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무한욕망’(nonsatiation)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는 인간의 당연한 행위이지만, 소비가 인간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가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고안한 제도와 정책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이루어지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dam Smith는 사람의 내면에 행위자와 ‘불편부당한 관찰자’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다. 개인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자와 관찰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